

시민사회단체에게 사업설명회 가져

사업회는 지난달 24일(목) 오후 5시 1층 교육장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 설명에 앞서 사료관에서 지난해에 구축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DB 검색 시스템' 시연회와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 마산, 대전, 인천 등 지역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3개의 기념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사업회는 2006년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과 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동아투위 30주년 기념식

자유언론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해 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올해로 결성 30주년을 맞았다. 이에 동아투위와 사업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동아투위 운동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 보는 기념식을 지난달 17일(목)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동아투위원들의 투쟁 장면과 각종 기록 등이 담겨진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동아투위 30년사를 정리한 『자유언론』 출판기념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동아투위는 『자유언론』을 주요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2005년 2·3월 기증자료]

기 증 자	내 용
가톨릭 전주교구 노동사목 성 요셉 노동자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사료 : 전북노련을 비롯한 전북지역 노동운동 자료, 노동상담자료, 노동실태조사자료 등 · 간행물 사료 : 전북지역 노동 사업장 간행물, 자료집, 소식지 등 · 물건 사료 : 판화, 판넬(노동자미술인모임 '가람') · 사진류 : '아세아 스와니' 관련 자료 등
이 재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 창간호(1991), 전북의 민족문학 2호(1991), 광주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재판기록(1985), 전북노동실태조사보고서(전주,이리,군산지역)(1980), 충남민청자료집-대전지역 경제실태와 노동상황(1987), 전북지역주민의 생활실태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1993), 부산지역 현실과 민중생활(1990), 민주화여 자주화여 통일의 깃발이어(80년대 민중·민주운동),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평양 축전참가보고 및 약평) 등
문 정 호	중국판 '님을 위한 행진곡' 음반CD
박 정 기	박종철 열사 관련 사진 등의 디지털이미지
정 진 동	정법영 열사 관련 사진 등의 디지털이미지
권 순 만	농민운동가 권중대 관련 사진 등의 디지털이미지
이 윤	동아일보 신문철 : 동아일보 백지광고사태 당시(74.12.26~03.11) 신문철, 1976년~1987년까지 매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신문 12부 등

‘민주화운동 사료 DB 구축 및 활용 2차사업’의 내용과 의의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1. 들어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 사료 DB 구축 및 활용’ 사업이 수행된다. 총사업비 6억 4천 5백만 원과 연 인원 5천여 명, 1일 평균 3,40명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진/필름과 문서류 등의 종이류 기록물을 중심으로 사료의 정보를 메타데이터 및 해제로 구축하고 원문 이미지를 PDF, JPG, TIF 등의 파일로 변환하여 DB화하는 내용이다.

DB로 구축된 사료들은 다양한 검색도구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개발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결과는 전체적인 사업이 끝난 후인 내년 1월 경 시스템을 개통하여 웹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편안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DB 구축 내용

이번 DB 구축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정지어야 할 일이 DB 대상의 범위를 결정짓는 일이다. 올해의 DB 구축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문서류 등의 종이형태로 이루어진 사료가 그 첫째 대상이고 사진/필름류 사료가 두번째이다. 여기서 문서류, 자료집, 성명

서 등에 대한 DB사업은 지난해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상태라서 올해에는 6,70년대에 발간된 민주화운동 관련 잡지나 신문, 이론테면 ‘다리’ 지, ‘민족일보’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한 후 DB 구축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진/필름류는 현재 필름상태로 수집된 분량이 9만여 컷, 다른 사료와 병행해서 수집된 인화 혹은 슬라이드 필름 등이 350여 건으로 아직 정리 되지 않은 상태로 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다. 사진류에 대한 작업은 현재까지 국내기관과 단체에서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분류하여 기술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사업회의 DB 구축 사례가 국내에서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사진/필름 정리를 위한 기반연구를 사업 초기 시점에 시행할 예정인데, 기록학적 관점과 사진학적 관점에서 사진 기록물의 정리기술이론을 점검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거친 후에 사업회 소장 사진류의 정리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록학과 사진학 전문가를 연구팀에 합류시켜 전문성과 객관성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향후 사업

수행단계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방법론의 일관성을 지켜 나갈 것이다.

3. DB 구축사업의 세부내용

현재 약 9만여 건에 달하는 사진 사료 중 약 47,000 건에 달하는 사진을 선별하여 디지털화할 계획이며 그 방향은 메타데이터, 해제, 이미지 구축 등이다.

이것 역시 온라인에서의 단순 열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진(약 1만 건 정도)은 오프라인에서 전시회 라든가 자료집 발간, 교육 혹은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고화질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제형식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 사진들이 10년, 100년 후에 검색만으로도 그 사진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서류와 같은 종이기록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메타데이터, 원문 이미지 구축 외에 텍스트 작업을 병행하여 현재 이미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검색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검색 색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전거 DB를 구축하여 민주화운동 사료를 열람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와 쉽고 빠른 검색을 제공할 계획이다.

4. 시스템 개발 내용

시스템 개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2004년도에 개발한 시스템(민주화운동 관련 DB 검색 시스템)을 확대개발하는 것이다. 즉 기존 시스템에 사진검색기능을 추가하고 콘텐츠에 있어서도 다양한 검색 분류를 시행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제공하는 방향이다. 여기에는 현재 년도가 중심이 되어 사료형태별로 정리되어 있는 검색 분류를 사건이나 인물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분류 디렉토리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신규개발 분야이다. 지난해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올해 사업의 무게중심은 사진/필름류에 실려 있는데, DB로 구축된 사진/필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새롭게 가공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시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가칭 ‘민주화운동 디지털 Archives 사진 전시관’이 그것이다. 이 개발의 방향은 기존의 Thumb-Nail이나 Flash 전시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i-Browser 등 새로운 기법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 외에 디지털화된 사료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진다. 이는 가치성 높은 사료들의 무분별한 남용과 특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인데, 소장기관의 마크를 각각의 사료에 표시하고(워터마크)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무단 복제를 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제어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업회 사료관은 지난 3년여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고 전문인력들을 고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도 관련하여 올해까지 구축된 민주화운동 사료들은 향후 사업회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의 기념사업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이들 DB 사료들은 민주화운동 사진집이나 자료집 등을 발간·편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의의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1차적으로 DB화 하고 그 구축된 사료를 2차적으로 가공·활용하는 다방면의 사료활용계획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사료분석사업이나 사료 가공을 통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